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8
----------	------

발의연월일 : 2020. 7. 16.

발 의 자 : 조명희 · 한무경 · 이태규
이 영 · 허은아 · 양금희
권은희 · 윤창현 · 배현진
강기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조치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이 가정 복귀를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도 이러한 ‘원가정 보호 원칙’이 우선시 되면서 학대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 재학대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문의료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조치한 상담·치료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가정 복귀를 결정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도록 하여 아동의 보호

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29조의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제29조의7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조치한 상담 및 치료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 아동학대행위자는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참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② (생략)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귀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이 경우 <u>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에는 제29조의7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조치한 상담 및 치료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u>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u>)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제29조의2(<u>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u>) 아동학대 행위자는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u>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u> <u>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u> <u>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u> <u>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u> <u>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u> <u>여야 한다.</u>	<u>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다</u> <u>만,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u> <u>등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u> <u>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u> <u>해소되는 즉시 참여하여야 한</u> <u>다.</u>
--	--